

광주시교육청 경비 과다지출 도마위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의견수렴 없는 외국어고 설립 강행 지적도

광주시의회는 21일 제1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는 시교육청의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와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추진 과정의 시민 의견 수렴절차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인 학교 체육시설 무료 개방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방교육재정 개선 노력 미흡=조호권(민주·북구 5) 의원은 이날 “교육행정기관의 운영비·학교 업무지원 경비 등 물건비 지출이 다른 지역 교육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시 교육청 운영비와 학교 업무지

원 경비 등 물건비는 494억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3.7%를 차지했다. 이는 6개 광역시 교육청 중 울산 다음으로, 16개 교육청 중에서는 ▲제주 4.1% ▲전북 4.0% ▲울산 3.9%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다.

특히 물건비 중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인 경상경비 세출예산(454억원)도 16개 교육청 중 제주, 전북, 울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또한 지난해 12억1400만원에서 올해 16억300만원으로, 3억8900만원이 증액돼 16개 교육청 중 경북 다음으로 증가액이 많았다. 이 밖에 이천세출 예산도 총 예산액의 1.

8%로 6개 광역시 교육청 중 최고였고,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인 자산취득 세출 예산 비율도 13.5%로 16개 교육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광주시의 재정지립도가 낮고 지역경제 상황이 열악할 뿐 아니라 교육예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해 지자체 이전수입이 낮다”며 “자체 예산 분석을 통해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외고 설립 절차 강행 논란=서정성(민주·남구 2) 광주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은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어고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 특수목적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위원장(부교육감)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외고 설립을 강행할 당시 부교육감이 명예퇴직으로 부재상태여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고 설립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심의를 단 한차례 가진 것은 ‘졸속 심의’였으며 이번에 외교 전환을 신청한 대광여고는 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대에 불과한 것 등 건전재정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외고 설립은 절차적인 부본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심의과정도 졸속이었다”라며 “광주시교육청은 교과부에 신청한 외교 지정 협의를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외고 설립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협의신청이 제기된 상태”라며 “교과부의 협의결과에 따라 외교 지정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의회, 외교 전환반대 성명

광주시의회는 21일 대광여고의 외국어 고등학교 전환을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전체 시의원 26명 가운데 24명이 참여한 이번 성명에서 의원들은 “광주교육의 최대 현안인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정에 교육 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특히 비리사학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특정 고등학교를 외국어고등학교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교 전환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외고 설립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

명량대첩 바닷물 흐름 밝혔다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은 413년 전 명량해전 당시(1597년 음력 9월16일)의 전남 진도 울물목의 조류현상을 재현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북서 방향으로 흐르는 밀물이 돼 10시10분께 초당 4m로 가장 빠른 유속을 보이고 나서 점차 느려져 낮 12시21분께 남동 방향의 썰물로 급변한다. 이어 오후 2시40분께 썰물 속도가 초당 2.7m로 최고조에 달하고 나서 6시56분께 유속이 초당 0m에 가깝도록 고요해졌다가 다시 밀물로 바뀌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오세요”

21일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찾은 도시 소비자들이 생명예술관에 전시된 이색 농산물을 살펴보고 신기해 하고 있다. ‘그린 농식품, 행복한 소비자’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31일까지 11일간 계속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김치타운 내일 개관

국내 최대 규모인 김치복합 테마파크인 광주김치타운이 23일 문을 연다.

광주시는 21일 “광주가 한국 김치의 본거지임을 상징하는 광주김치타운이 착공 6년 만에 준공돼 23일 개관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치타운은 지하 2층, 지상 4층의 복합건물로 김치박물관, 김치체험장, 김치가공공장, 영상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김치관련 집적화단지로 김치산업 발전과 김치공장 신규 가동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치박물관 등은 세계김치연구소가 이전되는 2012년 중반까지 광주시가 운영하고 김치가공공장은 광주김치협회에 위탁운영될 예정이다.

김치타운과 함께 양대축이 되는 세계김치연구소는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치타운 운영을 두고 세계김치연구소와 협의했으나 연구 장비 미흡 등 현실적인

여건 탓에 일단 광주시가 맡기로 했으며, 기간도 행정절차로 인해 애초보다 1년 이상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구 임암동 김치타운 내 김치광장에서 열리는 개관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민주당 김영진·장병완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정현 국회의원, 김성훈 세계김치문화축제 추진위원장, 박완수 세계김치연구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하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6억원 상당의 광주 김치를 수출하는 양해각서 체결식도 함께 열린다. 광주시는 또 이날 독거노인들에게 김치 150kg을 전달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천년의 맛, 세계로’ 김치문화축제 개막

내일부터 닷새간 중외공원…“시민참여 축제로”

제17회 세계김치문화축제가 23일부터 5일간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북구 중외공원 일원에서 개막한다. ‘천년의 맛, 세계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김치문화축제는 김치산업화, 축제세계화, 시민참여축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배추의 이상 폭등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으나 예정대로 시민과 외국인에게 가장 깨끗하고 최상의 맛을 머금은 김치를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전시·경연·학술대회 등 43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한국김치 100선’, ‘세계의 김치류’, ‘세계화된 김치’ 등 5개, 경연은 ‘올해의 김치명인’, ‘김치퓨전요

리’, ‘김치초밥왕 콘테스트’ 등 3개, 감칠매기 홍보관 및 김치 맛집 운영 등 마케팅 분야 19개, 국제 컨퍼런스 및 공모전 16개 등이며, 이들 프로그램은 5일 간에 걸쳐 계속된다.

광주시는 이번 축제를 위해 광산구 임곡동 농가와 1000명의 친환경배추 계약재배해 1만5000포기의 배추를 방문객들에게 시중보다 싸게 공급할 예정이며, 압춘 메주영농조합 등이 참가하는 ‘김치부재료 장터’, ‘전통 발효식품 장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전용 김치담그기 체험장’을 축제기간 상설 설치하고, 광주김치타운과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방문객 편의를 최대한 배려할 방침이다.

‘한국김치 100선’에서는 유기농 김치, 궁중김치, 사찰김치, 종가김치 등을, ‘세계의 김치류’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멕시코 등 9개국 30여종의 김치를, ‘세계화 김치’에서는 외국인 3~4세대의 현지에서 개량된 김치 10여종 등을 볼 수 있다. 또 경연에는 김치명인 분야에 6개 시·도 20명, 퓨전요리 분야에 9개 시·도 20명, 김치초밥 분야에 일식요리사 20명 등이 참여해 전국 축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와 함께 이번 김치문화축제에는 강운태 시장의 초청으로 지난 2001년 대한민국 ‘kimchi’를 세계 김치 표준으로 인증해준 카렌 홀백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의장이 찾아 개막일인 23일 제17회 세계김치문화축제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 나서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운태 시장, 국제기구 공동회장 선출

강운태 광주시장이 광주시 최초로 국제기구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시는 지난 19일부터 3일간 일본 하마마츠시에서 ‘지방정부의 세계화 대응’을 주제로 열린 제3차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아·태지부(UCLG-ASPAC)총회에서 강 시장이 공동회장에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공동회장에는 강 시장과 함께 김병

일 대구시장, 중국인민대회 해외친선협회장, 호주지방정부협회장, 인도지방자치협회장, 네팔지역개발위원회 홍보관이 선출됐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127개국 1000여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공동 회장에 피선된 강 시장은 오는

2012년 7월까지 UCLG에서 ASPAC 회원도시의 의견을 대변하게 되며, ASPAC 회의를 주재하고, 당

면한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을 위한 도시간 공동 협력은 물론 ASPAC의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된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 | 문 | 방 | 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꺼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010-8494-9484

새로 발명한

발목 펌프 운동봉

1일 30~40분 운동으로 노후 건강이 보장된다

발목펌프운동

은 혈액순환장애에서 시작되는 모든 질환에 대한

각정을 해결시켜 준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은 사람의 심장에서 밀려나간 혈액이 발끝까지 내려가면 힘이 쇠진 되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데서 온다.

지속적인 왕성한 혈액순환을 위하여 일본인이 최초로 개발한 이 기구는

약을 전혀 먹지 않고 꾸준한 발목펌프운동만으로 각종 질병이 치유됨과

동시에 예방 할 수 있으므로 평생을 건강하게 무병장수 할 수 있다.

운동봉을 빌려 드리오니 실제 체험을 해 보시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구입하시고 효과없으면 반품하세요.

운동방법

1. 누워서 운동봉 위에 두 다리를 올려 놓는다.

2. 한쪽 다리를 30cm이상 위로 올렸다

가 떨어뜨리기를 50번씩

반갈아 좌, 우 교대로 한다.

3. 이상과 같이 처음에는 하루에

500회 1,000회를 차차 횟수를 늘려

1일 3,000회 아침 저녁

2회 정도 매일 꾸준히 한다.

상담 전화

062-672-2002 / H.P.010-7510-2000

광주 남구 진월동 258-1 2층 제일건강(국민은행 건너편 던킨도너츠 2층)

온라인계좌

●광주은행 125-121-002455 ●농협 601154-52-335334

●예금주 : 서영 섭